**3월 삼일절** – 지구하 에피소드

(띠로롱) / (집)

아…, 연락올 곳도 없는데 누구야….

폰에 알람이 울려 확인해보니 문자 한통이 와있었다.  
읽어보니 대충 알바 자리에 한 명 빵꾸났으니 한가한 나보고 대타를 오라는 말이였다…

오랜만에 늦잠이나 자려고 했는데…힝.  
그래도 추가 수당 개꿀!

주섬주섬 옷을 입고 술집으로 향했다.

(페이드 인) / (술집 화면) / (페이드 아웃)

아, 막상 올 땐 추가 수당 때문에 행복했는데……  
이 황금 같은 공휴일에…… 알바라니.  
저번부터 느낀 건데 사장 이 사람, 나만 싫어하는 거 맞지?  
오늘 한가한 사람 많잖아! 공휴일인데!!

커플1: 여보~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뭐 먹을까?  
커플2: 나는.., 너?

..나만 한가한 사람인가보다…ㅠ  
마음 속으로 언젠가 나도… 저 멘트를 날리리! 하며 다짐을 하고 있던 와중 사장님이 다가오셨다.

/ 00아.. 지금 바쁜 거 안보여? 알바가 장난이야?! (화면 흔들림)

순간 욱한 마음이 들었다.  
이 사장은 정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?

하.., 사장님 그런게 아니ㄹ

너가 한 달하고 나간다 했으면 한달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야할 거 아니야?(화면흔들림)  
?   
사장님 저 한 달하고 나간다한 적 없는데요?

?

너 입으로 그랬잖아..?

한달 아니고 6개월이라고 했었는데…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

사장님은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메모장 하나를 들고와서 잠시 뭘 확인하는 가 싶더니 이내 자기가 다른 알바생과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.  
/ 아이고…, 난 너가 한달만 하고 그만두는 줄 알고..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.  
/ 이번 달 급여에서 보너스까지 얹어줄 테니 이거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줘라!

자기는 볼 일이 생겼다며 머쓱한 지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.  
음… 일단 야미~

(페이드 인) / (밤 공원) / (페이드 아웃)

아.. 드디어 퇴근이다.  
뭔가 사장님께서 오해를 단단히 하신 모양인데…., 풀렸으면 됐지 뭐.  
돈도 더 벌었겠다. 오늘은 저녁은 치킨이닭!

기분 좋게 집 앞 공원을 지나가던 중,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.  
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반강제로 내 번호를 가져간 열정 세탁녀였다.  
당장이라도 번호를 가져가 놓고 왜 연락을 안하냐 말하고 싶지만,  
지금은 피곤하니 나중에……

어!!!! (화면 흔들림)  
00씨다.

모른 채 지나치려는 와중, 멀리서 큰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.  
오늘따라 왜 다들 나한테 관심이 많으실까..-?  
00씨 안녕 안녕~!

펄쩍펄쩍 뛰면서 큰소리로 잘 부르는 거 보면 취했을 때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.  
지구하는 마시던 물을 벤치에 내려두고 나에게 뛰어와서 말을 이었다.

어떻게 여기서 보지? 완전 신기하네요! 어, 근데 저 기억은 나요?  
그녀는 신이 났는 지 연달아 질문을 한다.  
하나씩 물어봐…

아차, 너무 신이 나서 그만…헤..

혼자 여기서 뭐해요?

아 저, 수영 학원 갔다가 내일 시험이 있어서 체력 관리할 겸 가볍게 조깅하고 있었어요.  
하루도 안 하면 심심한 감도 있고!  
역시 열정녀 아니랄까봐…, 나도 귀찮아서 잘 안하는 운동을 학원까지 다니며 하고있다.  
수영? 역시 복근은 괜히 있는 게 아니였구만.  
00씨도 같이 조깅하실래요?  
운동하면서 땀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!  
운동이 뭐지? 먹는 건가?  
엣, 너무해요.  
운동 진짜 보람차고 좋은건데..(아쉬운 표정 / 슬픈 표정)  
그럼 다음에는 같이 해요! 헤헤.  
거절의사라는 것을 모르는 건가?  
그건 그렇고 얘 세탁비는 언제 주겠다는 거야? 까먹은 거 아냐..?

1. **저번에 울고불며 주겠다던 세탁비는 언제 줄 거에요?**

아 세탁비! 죄송해요…  
당장은 돈이 없어서…헤헤

진짜, 진짜.. 생기자마자 바로 보낼게요!!  
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..!

1. **그때 일은 기억나요?**

네? 아, 아!  
다, 당연하죠~!  
제가 그때 신세를 졌네요. 하핫.. 죄송합니다.

돈이 생기면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..,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!  
빠른 시일 내로 보내겠습니닷!  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지구하는 그때 일이 생각나 미안한 지, 살짝 얼굴을 붉힌 채로 말했다.  
이걸 믿어야 해, 말아야 해?

…

아이고, 벌써 시간이..!  
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!!!

?  
뭐, 뭐.?? 지구하!!

지구하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도망치듯 어디론가 뛰어가버렸다.  
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 맞지..?  
그녀가 머물던 자리에선 은은한 샴푸 향이 남아있었다.

(페이드 인) / (집) / (페이드아웃)  
….

운동을 좋아 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럽다.  
나의 운동 루트는 항상 작 심 삼 일 이였기 때문이지!  
의지부족이다 나 자신/000!

...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?  
거울을 보던 나는 결국 자기합리화로 의지 부족을 덮어냈다.